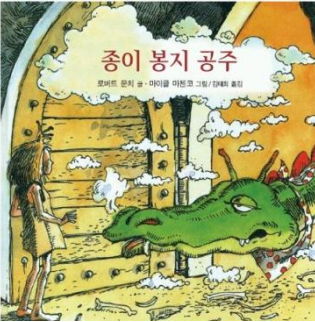


모인 시간 :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늦은 4시 40분  
 함께 한 사람들 : 달팽이, 민들레, 제비꽃, 오징어, 다행, 늘보

오징어와 다행이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모임 시작.

## 1st 책 종이 봉주 공주

글 로버트 먼치 그림 마이클 마르첸코 역자 김태희 비룡소



지금까지 보았던 공주 그림책의 주인공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공주가 등장하는 **[종이 봉주 공주]**를 달팽이가 읽어 주었습니다. 읽기 전 달팽이는 이런 퀴즈를 내었지요.

*백설공주, 신데렐라, 잠자는 숲 속의 공주와 종이 봉주 공주의 다른 점을 5가지 찾아 보세요*

책의 내용은 공주가 아닌 왕자가 못된 용에게 붙잡히게 되고, 공주는 껍을 내어 용을 잠재우고 구해 낸다는 것입니다. 책을 다 읽은 후 각자 생각한 퀴즈의 답도 이야기 하고 백설공주가 가지고 있는 백인우월주의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자, 남자의 모습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.



## 2nd 영상 아이의 사생활\_도덕성

EBS 다큐프라임



EBS에서 방영되었던 **[아이의 사생활]** 중 **도덕성** 편을 시청하였습니다.

영상은 어른,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가지 도덕성 실험을 보여 주었고, 특히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 중 도덕적 지수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자세히 다루었습니다.

몰래 카메라처럼 진행된 어른들의 도덕성 실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약속된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든 사례비가 든 봉투를 받아 가는 결과를 보면서 "도덕적 행동에는 용기와 민감성이 필요하다"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.

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실험에서는 경쟁과 익명성이라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. 결과는 도덕적 지수가 높은 그룹의

아이들이 약속된 규칙을 잘 지키고, 이 아이들이 자제력 테스트, 설문 조사를 통한 미래 인생관(삶의 만족도, 좌절극복, 희망)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규칙을 어긴 그룹에 자신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을 때 몹시 부끄러워 하는 영상에서 "부끄러움은 도덕의 시작"이라는 메세지도 전달하였습니다.

영상을 시청한 후에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
-나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매사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가족을 보면 손해본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 
바보처럼 느낄 때가 있다.

-우리가 좋아하는 친구,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들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.

-나는 얼마나 아이를 얼마나 도덕적으로 키우고 있는가, 너무 많은 허용 때문에 아이가 그 기준을 헛갈려 하는  
것은 아닐까?

등등...

아이를 키우는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로써 순간순간 울컥하기도 했지만, 화기애애(?) 즐거운 분위기로 모임을  
마쳤습니다.

다음 모임은 9월 30일 화요일 늦은 4시 30분 짱뚱이도서관에서 합니다.